

‘가족’ 과 ‘정의’ , 가능한 만남인가?

-S. M. Okin의 해석을 중심으로 -

이 지 성*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롤즈의 눈으로 본 가족
3. 오킨의 눈으로 본 롤즈
4. 맺는말

1. 들어가는 말

“하나는 따뜻하고 화목한 색채, 아니 느낌 같은 거였고, 다른 하나는 까닭 모를 아비규환과 혼돈과 섬뜩한 고립감이었다.”

박완서의 소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에서 주인공 오목이는 언니인 수지에 의해 피란 길에서 버려져 고아원을 전전한다. 오목이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은표주박은 한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가족을 추체험하게 한다. 오목은 가족이란 ‘따뜻하고 화목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싶어하지만, 독자들은 오목의 그 느낌은 환영일 뿐이

*) 본교 철학과 박사과정 수료

1) 박완서,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박완서 문학전집』 세계사, 1994, 38쪽

고 가족이 얼마나 아비규환인지를 알고 있다. 『그해 겨울...』은 가족을 문제삼으면서 우리 사회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으로 만연된 가족관념에 질문을 던진다.²⁾ 이 소설에서 현대의 가족이란 따뜻하고 화목한, 신성불가침의 가치라는 환영을 통해 타자에 대한 배제와 계급적으로 적대적인 차별과 또 결코 침해할 수 없는 차별적 위계가 드러나는 장이다.

가족은 마르크스를 비롯한 수많은 근대 사상가들에게 탈 신비화 작업의 중요한 대상이 되어 왔지만, 여전히 지고의 가치 체제라는 권좌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페미니즘적 이론과 실천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면서 가족은 꾸준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가족에 대한 논의는 현대 윤리학 담론의 중심에 서게 되는 자유주의와 만나게 되면서 급속도로 활발해지기 시작한다. 사실 자유주의는 참정권 운동을 통해 초기 여성 해방운동을 주도해 왔고, 남녀의 동등한 권리와 자유의 확보를 위해 사회적, 법적, 교육적 영역 등의 공적인 영역에서 많은 공헌을 해 왔다. 하지만 자유주의는 사적인 영역, 즉 가족이라는 영역에서는 여전히 가부장주의를 유지해 오고, 자유주의가 주장하는 평등은 형식적인 기회균등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1968년 시작된 제2기 페미니즘(The second wave of feminism)이 자유주의를 위시한 전통적 사상의 공·사 영역 구분에 내재된 가족에 대한 중요한 가정인 분리성의 허구를 폭로하면서 자유주의와 페미니즘은 더 이상 인연을 맺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졌다. 즉 기능주의적인 생물학적 결정론에 따른 성역할(sex roles)이 비판되고, 사회문화 구성주의적 성별 혹은 성차의 관점(gender perspective)이 가족 분석의 기본 도구로 설정된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1970년대 이후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사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the personal is political)”라는 슬로건을 들고 나오면서 공·사 영역 구분에 내재된 가부장제의 음모를 폭로하고, 가족을 여성 억압의 근원이라고 주장한다. 1980년대 이후에는 길리건(C. Gilligan)의 보살핌과 책임 윤리의 등장으로, 자유주의를 토대로 삼는 콜버그의 정의와 권리의 윤리가 남성적이라고 비판되고,

2) 권명아 『가족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책세상, 2000, 74쪽. 권명아는 이 책에서 박완서 『그해 겨울...』을 가족의 기원을 잘 드러내 주는 소설이라고 평가하면서, 과연 가족의 품은 따뜻하고, 피는 물보다 진한가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여성의 고유한 도덕성을 남성적 윤리학과 대등하거나 우월한 것으로 격상시킨다. 또 1980년대 이후 전개된 '자유주의 대 공동체주의' 논쟁에서 페미니스트들은 자유주의적인 개인주의를 반대하고 공동체적인 결속에 동조하는 듯 보였다. 그런데 공동체주의가 옹호하는 가족도 전통적인 가부장제적 가족주의라는 점이 밝혀지고, 공동체주의자들 일부가 신 가족주의(New Familianism) 혹은 신 우익(New Right)과 결탁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페미니스트들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사이에서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자유주의와 페미니즘이 완전히 결별한 것이 아니라 한 논문이 조금씩 페미니스트들의 숨통을 터주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오킨(Susan Moller Okin)의 『정의, 성별, 그리고 가족 Justice, Gender and the Family』은 자유주의자의 대표격인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 글은 오킨의 『정의, 성별, 그리고 가족 Justice, Gender and Family』을 토대로 과연 공·사 이분법이라는 명목으로 '가족'을 하찮게 내 버린 자유주의가 '가족'을 구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도저히 만날 수 없을 법한 자유주의의 지고의 가치인 이성적이고 남성 편향적인 정의가 사적이고 감정적인 가족을 구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다.

우선, 현대 정의론을 주도하고 있는 롤즈가 과연 가족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 또 일반적인 페미니즘이 롤즈를 어떻게 비판하는지(2장)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오킨이 주장하는 자유주의적 페미니즘 정의론이 무엇인지(3장), 과연 타당한 논변인지(4장)를 평가해 볼 것이다.

2. 롤즈의 눈으로 본 가족

롤즈는 인간을 자신의 의사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진 존재로 이해한다. 이성 능력을 가진 인간들은 그들이 어떤 처지에 있던 존엄한 가치를 갖는 평등한 존재로 여겨진다. 그런데 자율적 선택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성을 존엄성의 중요한 원천으로 생각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자율적 선택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한 경우이다. 이런 상황에서 합리적인 능력을 가진 자율적 존재로

서의 인간의 선택권은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

이 때문에 롤즈는 형식적 평등(formal equality) 자율성(autonomy) 공정성(impartiality) 보편성(universality)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이러한 가치들이 사회 속에서 야기될 수 있는 갈등 상황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이다. 즉 자유롭고 평등하면서 합리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평등한 계약의 조건하에서 사회 기본 구조(basic structure of society)에 적용되는 정의의 원칙³⁾에 합의한다는 말이다. 사회 성원들에게 의무와 권리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구조화된 다양한 사회 제도들을 통해 정의의 원칙이 수행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정의의 원칙이 적용되는 다양한 사회 제도 속에 가족이 포함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롤즈는 가족, 특히 일부일처제를 사회의 기본 구조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한다.⁴⁾ 하지만 그것을 최소한 정의로운 것으로만 가정할 뿐, 정의의 원칙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장으로서의 가족은 언급하지 않는다. 자유주의적인 공사 이분법에 따라 가족을 국가나 사회보다 앞서서 사적 관계이며 정치적 권위가 침입할 수 없는 장으로 간주함으로써 가족은 정의와 무관한 것으로 가정한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롤즈가 여성⁵⁾과 가족을 사회정의론에서 아예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롤즈는 『사회정의론』 곳곳에서 여성과 가족을 그 자체를 주제로 삼고 있지는 않지만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루고 있다. 우선 원초적 입장에서 도덕적으로 자의적

3) 롤즈는 정의의 원칙을 위한 배경 조건은 ▲모든 자원의 적절한 부족 상태 ▲상호 무관심성(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이해만 따진다) ▲적절한 부족 상태 아래서 상호 무관심한 자들이 사회적 이익에 대해 상충되는 요구를 제시할 경우, 사회 정의가 필요한 조건이 성립한다.

4) J. Rawls,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이 글에서는 황경식이 옮긴 『사회정의론』서광사, 1985를 인용함, 29쪽 (TJ라 줄여 사용함) 사회적 기본 구조는 사회의 주요 제도가 권리와 의무를 배분하고 사회 협동체로부터 생긴 이익의 분배를 정하는 것인데, 여기서 주요 제도는 정치의 기본법, 기본적인 경제적, 사회적 체제를 말한다. 그래서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경쟁적 시장, 생산 수단의 사유에 대한 법적인 보호, 일부일처제등이 주요한 사회제도의 예라고 덧붙인다.

5) 이 글에서는 롤즈의 여성에 대한 관점이 주된 논점은 아니지만, 가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면서 중요한 개념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다루었다.

인 속성으로 간주되어 무지의 베일로 가려지는 성(sex)으로 드러난다. 즉 롤즈는 성(sex)이란 무지의 베일에 의해서 숨겨진 도덕과는 무관한 우연적인 것 중 하나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하지만 정의론 전체에서는, 원초적 입장에 있는 인간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들의 목록들을 “사회에서 자기의 직위나 계층 ... 천부적 재능이나 체력을 어떻게 타고날지 ... 가치관이나 인생 계획, 또는 자신의 특수한 심리적 경향과 그들이 속한 사회의 특수한 사정”⁶⁾이라고 나열하는데, 성은 언급되지 않았다.

둘째는 정의로운 저축원칙(just savings principle)과 관계된 세대간(between generations) 분배적 정의를 위한 연계적 역할로서의 가장(head of families)에 대한 논의에서이다. 정의로운 저축의 원칙은 현 세대가 그 후손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까지 존중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문제이다. 정의로운 저축 원칙에 대한 논의는 정의의 여건(circumstance of Justice)을 이야기하는 2장에서 나타난다. 사실 이러한 세대간의 감정적인 연대는 정의와 무관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왜냐하면 원초적 입장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의의 여건이 미리 상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원초적 입장에 있는 것이 제 3의 당사자, 즉 그들의 직계후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갖는 지에서 생긴다.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개인들간의 상호무관심(mutual disinterested)이 전제인데 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롤즈는 그 문제를 해결할 당사자를 가족의 가장으로 상정하는 예를 들고 있는 것이다.⁷⁾

셋째는 공정한 기회균등 실현의 장애물로서 가족 사이의 불평등에 관한 언급이다. 이 논의는 정의의 원칙 중 제2원칙⁸⁾을 제시하면서 시작되는데, 여기서 가족은 부와 가난의 세대적 세습과 재생산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반사회적인 것으로 나타난다.⁹⁾ 롤즈는 여기서 자연적 사실인 가족 그 자체는 부정의 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것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정의 여부를 물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가족 내부에서 일어나는 불평등은 누진세와 같은 조세정책, 그리고 실질적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의 적용을 통해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롤즈는 성

6) TJ 29쪽

7) TJ 145-148 쪽 참조

별, 인증 혹은 다른 불변적인 자연적 속성에 근거한 불평등은 오직 그러한 불평등이 최소수혜자의 기대치를 향상시킬 경우에만 정당화 될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확신한다.¹⁰⁾

마지막으로 도덕발전의 기초적 교육장소로서의 가족이다. 즉 도덕발전을 위한 최초의 학교로서 가족에 대한 언급이 그것이다. "사회 성원들은 정의의 제 원칙이 요구하는 바대로 행위 하고자 하는 강력하고 정상적으로 효력을 갖는 욕구를 지니고 있음"과 관계되는 이 논의는 사회정의론 3장에서, 질서정연한 사회(well-ordered society)가 도덕감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성원들에 의해서만 안정될 수 있다는 내용 중에서 나타난다. 그는 그의 관심을 특히 어린이들의 도덕 발전으로 돌린다. 왜냐하면 도덕감이 성취되는 중요한 단계를 지적하기 위해서이다. 롤즈가 가족을 정당하게 생각하는 내용이 이 컨텍스트에서 드러난다. 게다가 이 정당한 가족은 도덕 발전에 대한 그의 설명에서 근본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도덕 발전의 ▲첫 번째 단계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그의 존경을 받을만한 값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데서 비롯된다.¹¹⁾ 롤즈는 이 단계를 '권위의 도덕 morality of authority' 이라는 말로 부른다. 그는 도덕감을 사회의 보다 어린 성원

8) * 정의의 두 원칙 : 평등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만 차등될 수 있도록 한다.

(1) 평등의 원칙에서 시작 (정의의 1원칙)

(2) 차등의 원칙 : 차등이 모든 사람의 처지를 개선해 줄 때 적용. (무지의 베일을 통해 최소극 대화의 원칙달성)

* 최소 수혜자의 관점에서 대안 평가

불평등이란 최소수혜자 집단의 장기적인 기대치를 극대화시키거나, 적어도 그에 기여할 경우 허용한다.

* 원초적 입장의 최종적 정의의 두 원칙

(1) 제 1원칙 : 각 개인은 모든 사람에 대한 유사한 자유의 체계와 양립 가능한 평등한 기본적인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총체 체계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2) 제 2원칙 :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a)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고 (b) 기회 균등의 원칙 아래서 만인에게 개방된 직책, 지위에 결부되어야 한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1) 경제적 이득에 대한 자유 우선의 원칙 (2) (a)의 차등의 원칙 (3) (b)의 기회 균등의 원칙

9) TJ 94쪽

10) TJ 109쪽

11) TJ 90-95 쪽 참조

들이 자라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습득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세대의 연속과 어린이들에게 도덕적인 태도(아무리 단순한 것일지라도)를 가르칠 필요성은 인간생활의 조건 중 하나이다. 여기서 롤즈가 가정하는 것은, '질서정연한 사회의 기본구조에 일정한 형태의 가족이 포함되며 따라서 유아들은 그들의 부모의 합당한 권위에 최초로 예속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그 아이에게 자기 자신의 가치관과 그들과 같은 인간유형이 되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롤즈는 이 단계, 즉 삶의 초기에서 건전한 도덕 발전은 사랑, 신의, 애정, 모범, 그리고 지도에 의존한다고 주장한다. 도덕 발전의 ▲다음 단계에서 가족은 '공동체적 도덕(the morality of association)'¹²⁾으로 불린다. 이 단계는 해당되는 교우관계에 따라 그 범위가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로서의 국가공동체까지도 내포한다. 여기서 도덕의 내용은 협동적 미덕, 즉 정의와 공정, 성실과 신의, 총화와 공평의 덕에 의해 특징 지워진다. 권위의 도덕이 대체로 계율인데 반해, 공동생활을 위한 도덕은 어떤 개인이 속하는 바 여러 조직체에 있어서의 그의 역할에 적합한 도덕적 기준에 의해 주어진다. 롤즈의 도덕 발전 ▲세 번째 단계¹³⁾에서 개인들은 정의의 원칙을 스스로 부여하게 된다고 추정되었다. 롤즈는 세 번째 단계를 '원칙에 의거한 도덕(morality of principle)'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원칙이란 원초적 입장에서 고려되는 바와 같은 제1원칙들을 의미한다. 이 법칙에 의하면 사랑과 신뢰, 우호와 상호 신뢰의 태도가 일단 앞선 두 법칙에 의해 생겨나면 우리와 우리가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이미 확립되어서 존속하는 정의로운 제도의 수혜자임을 인정함으로써 우리에게 그에 상응하는 정의감이 생겨나게 된다.

앞서 살펴본 네 가지의 경우를 보면, 롤즈의 정의론은 무지의 베일을 통해 성별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차별 없는 평등한 도덕적 관점을 마련해 주는 것처럼 보인다. 또 원래 상호 무관심한 것으로 가정된 계약 당사자들이 세대간 정의의 문제 때문에 가장이나 가족의 대표로 등장하는 것은 어쩌면 페미니스트들의 호응을 받을 만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가족에 대한 롤즈의 논의에 대해 여러 페미니스트들의 반발이 이

12) TJ 96-101 쪽 참조

13) TJ 102-109 쪽 참조

어졌다. 우선 잉글리쉬는 “원초적 입장에서 계약 당사자들을 개인이 아니라 가장으로 설정함으로써 롤즈는 가족을 정의의 요구가 통용되지 않는 것으로 만든다”고 비판한다. 잉글리쉬는 가장이란 결국 가부장을 의미하고, 그 속에서 모든 이익과 부담은 동일시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가장이라는 가부장제적 가정은 결국 가족 내에서의 효율성의 증대를 위해 가족 전체의 더 큰 복지라는 이름으로 성 역할의 고정적 할당과 장자 상속 등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페이트먼 (Carole Pateman)은 롤즈의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베일 속에서 성별이 없어지는 것은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¹⁴⁾ 원초적 입장이 오히려 인간 개개인의 중요한 사실인 성에 대한 인식을 제거함으로써, 현실에서 유리된 계약당사자는 무한히 복제될 수 있는 추론적인 실체에 불과하게 된다는 말이다. 또 잉글리쉬와 마찬가지로 세대간 저축원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가정에 대한 논의도 결국은 여성과 그 이익을 대표한다고 하면서도 묵살하는 가부장에 불과하다고 비난한다. 나아가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기초가 되는 계약 사상은 실제로 여성의 노예적 종속을 위한 성적 계약이 전제되어 있음을 강력하게 비판한다.

길리건을 비롯한 보살핌의 윤리를 주장하는 페미니스트들은 롤즈의 정의론은 계약 당사자들이 냉혹한 합리성에 따라 타인에 대한 고려와 감정이입이 없는 메마른 이성적 추론만 행하는 남성주의적 정의론이라고 비판한다. 또 롤즈의 정의론에 포함된 보편적인 정의의 원칙이 가족간의 특수적 관계와 보살핌을 기초로 하는 여성의 관점과는 맞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또 공동체주의에 동조하는 페미니스트들은 롤즈의 합리적인 계약당사자들은 무연고적인 자아로서 가족을 위시한 공동체적 결속과 공동선을 고려하지 않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오킨에게 롤즈의 논의는 성 중립적인 사회(gender-free or neutral society)를 위한 공정성을 확보해 주는 중요한 철학적 도구로 여겨진다. 그래서 적

14) Carole Pateman "The Disorder of Woman: Woman, Love, and the sense of justice" Ethics, vol.91, 1987, 20-34쪽 참조

절한 변경과 재해석을 하면서 페미니즘에 원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제 는 과연 일반적인 비판에 맞선 오킨의 주장이 어느 정도 가능한 논의인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될 것이다.

3. 오킨의 눈으로 본 롤즈

『서구 정치사상에서의 여성 Women in Western Political Thought』에서 “자유주의를 위시한 정치철학의 위대한 전통은 남성에 의한 남성을 위한 남성에 대한 글 로 이루어져 있다.”¹⁵⁾라고 비판했던 오킨이 왜 롤즈의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적, 사회계약론적 정의론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일까. 과연 그의 말처럼 롤즈의 정의론이 ‘남성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빠져버린 정의론’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교정하고 재 해석하면 여성주의적 비판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일까.¹⁶⁾

오킨은 이 작업에 앞서 롤즈의 정의론이 남성적인 이성애에 의해 주도되어 온 이 론이기 때문에, 여성적 보살핌의 윤리학과는 대치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즉 보살핌 의 윤리 대 정의의 윤리 논쟁이다. 이 논쟁은 페미니즘이 비판하는 공사 이분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복합적인 문제이지만 오킨에게는 필수적인 문제이다.

롤즈의 정의론에는 이성과 감정이 대치하는 상황이 전제된다. 무지의 베일이 드 리워진 원초적 입장에서는 각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들은 ‘상호무관심’을 기본적 동기로 하는 합리적 선택자로 등장한다. 그래 서 롤즈는 ‘자연적 애정의 광범위한 유대관계’ 같은 것을 전제해서는 안된다는 것 을 분명히 한다.¹⁷⁾ 특히 롤즈의 정의론은 ‘의무론적 자유주의’의 한 유형으로 설명

15) S. M. Okin, *Women in Western Political Thought*,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9, 7쪽

16) S. M. Okin, *Justice, Gender and the Family*, New York: Basic Books, 1991, 101, 107 쪽(JGF로 줄여 사용함)

17) 이 비판은 보살핌의 윤리학을 주장하는 학자들에게는 필수적인 것이지만, 롤즈 자신은 상호 무관심성의 전제가 추상화된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실제의 구체적 행위자들의 특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한다. 이 특성은 실제 행위자들의 목적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유를 허용하기 위해 원초적 입장에서 부여 된 사고 실험에 불과한 것으로, 선행적 제한은 아닌 것이다. TJ, 127-129쪽 참조

되기도 하는데, 개인의 모든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요소를 배제하는 원초적 입장에 대한 칸트적 해석은 결국 윤리학에서 감정의 위치와 역할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러한 의무론적 자아관이 이기주의나 인간 소외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 받는다.

그런데 오킨은 이러한 이성과 감정의 대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오킨은 “정의에 관한 사유에서 이성과 감정 Reason and feeling in Thinking about Justice”이라는 논문을 통해 롤즈가 사회정의론을 발표한 이후에 “정의론을 합리적 선택이론의 일부로 보았던 것은 정의론의 매우 큰 오류였다”고 시인한 점에 고무된다. 롤즈가 인정한 것은 합리성이 정의론의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¹⁸⁾ 그래서 원초적 입장은 추상적인 합리적 선택이론에 의해서만 해석될 필요가 없다. 오킨은 계약 당사자들의 상호무관심에 대한 가정도 무지의 베일 속에서는 각자의 이익이 결코 ‘구별되고 분화된’ 것으로 나타날 수 없으므로, 그 가정은 오히려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공정하고 동일한 감정 이입, 그리고 이타심과 보살핌을 요구하는 도덕적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한다.¹⁹⁾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 원초적 입장에서는 민족, 성별, 종교, 정치적 신념이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동일한 공감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동일한 공감과 보살핌을 통해서만 최소수혜자의 관점에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되는 롤즈의 정의 원칙들이 도출될 수 있다. 따라서 최소수혜자의 최대이익을 도모하라는 ‘차등의 원칙’은 결코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직접 도출될 수 없다는 비판은 옳았다는 것이다. 특히 차등의 원칙은 공감적 고려와 보살핌, 그리고 우리와 타인의 능력 사이의 연대감이 없으면 결코 도출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오킨은 정의의 윤리를 사회제도의 공적 영역에만, 그리고 보살핌의 윤리를 가족 생활의 사적 영역에만 적용하려는 것은, 전통적인 공사 영역 이분법을 더욱 조장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여성해방을 위해서는 정의의 원리 특히 분배적 정의의 원리를 사적 영역에 도입하고, 보살핌의 원리를 공적 영역에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 교차적 영역 확장이 없이 양육과 가사의

18) S. M. Okin, “Reason and feeling in Thinking about Justice” Ethics, vol. 99, 1986, pp.229-249쪽 참조(RF로 줄여 사용함)

19) RF, 249쪽

전담자로서의 여성의 보살핌을 강조하면 전통적 공사 이분법을 재 강화하여 여성 억압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또 반페미니스트들에게 악용될 소지가 있게 된다는 말이다.²⁰⁾

이러한 전제를 토대로 오킨은 조심스럽게 롤즈가 가족제도를 경제제도와 함께 정의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적 기본구조 속에 두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그의 정의론을 재해석해 간다. 우선 사회적 기본 구조로서 상정된 가족은 경제제도와 더불어 설정되었기 때문에, 자유주의적 공사 이분법의 국가·사회 유형²¹⁾이나 공공·가사영역 유형²²⁾과도 다르다고 주장한다. 앞장에서 논의한 것처럼 비록 롤즈가 정의의 원칙을 가족내부에 적용하지 않고 어떤 형태의 가족(일부일체제)이 정의롭다는 것을 가정하고 말았지만, 그러한 위치 설정 자체가 자유주의적 공사 이분법을 해체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는 것이다.

오킨의 관심은 롤즈가 자유주의자들 가운데서 드물게 가족을 사회화, 특히 정의감 형성을 위한 중요한 장소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 이르러 좀 더 확장된다.²³⁾ 앞서 논의한 것처럼 롤즈는 인간의 도덕 발달 과정을 권위의 도덕, 공동체의 도덕, 그리고 원칙의 도덕 3단계로 나눈다. 그리고 제1단계와 제2단계의 초기에 아동의 도덕감 형성은 가족과 부모의 도덕적 사회화의 역할에 의존한다고 본다. 사실 4-5세만 되어도 정의와 공정성이 인지된다고 알려진 상황에서 가족 내부의 정의의 실현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부관계와 아동의 성별관계가 고정적으로 성별 분화되어 있는 가정에서 자란 아동들이 진정한 의미의 정의감을 획득하기 힘들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래서 오킨은 가족을 정의감의 기초적 학습장소로 본 롤즈의 입장에 동조하면서 진정한 정의감의 습득을 위해서 남성들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양육과 가사일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²⁴⁾ 취업여성이 귀가 후 양육과 가사노동을 위한 또 다른 하루(the double day or second shift)를 보내야만 하는 것을 목격한 자녀들은 과연 올바른 정의감을 습득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20) JGF, 21쪽

21) 고전적 자유주의처럼 공적 영역은 경제제도와 사유재산제도를 사적 영역은 시민사회 영역으로 간주함

22) 국가와 시장, 정치제도를 공공 영역으로, 가족, 개인적 관계를 사적인 가사영역으로 간주함

23) JGF, 21쪽

24) JGF, 21-22, 97-101쪽

여기서 한 발 나아가 오킨은 세대간 분배적 정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약 당사자들을 가장으로 가정한 점에 주목한다. 오킨은 이러한 가정은 가족 관계를 정적인 유대를 기초로 하는 자연적인 관계로 보고 가족 내부에는 정의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가장들 사이에는 정의의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가장이 꼭 남자가 될 필요도 없고 또 롤즈가 성차별을 위해서 이러한 가정을 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자유주의 공사 이분법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이다.²⁵⁾

오킨은 롤즈 정의론에 대한 이러한 지적과 교정을 한 후에, 이것을 페미니즘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한다.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베일이 갖는 공정성의 요구조건에 따라서 각자의 성별을 모른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성차별 없는 성 중립적인 정의의 원칙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킨은 원초적 입장에서 사람들이 결혼, 부모의 양육과 가사의 책임, 그리고 이혼에 관해서 어떠한 종류의 합의를 할 것인가를 상상해 보라고 제안한다.²⁶⁾ 그 상상에 따라 도달하는 것이 양성평등적 질서이며, 그 질서에 따라 정의의 두 원칙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오킨은 정의의 제1원칙에서 제시된 자유로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즉 공사영역 이분법과 성별적 가사 혹은 직업 노동의 분업 구조는 여성의 자유로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정의의 제1원칙은 가족 내에서의 성별 노동 분업 뿐 아니라 그것을 가정하고 있는 모든 사회적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²⁷⁾는 주장이다. 또 오킨은 롤즈가 주장하는 정치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도 성별 체제의 폐지가 필수적이라고 요구한다. 롤즈는 정치적 자유는 단순한 명목적 자유가 아니고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현실적 능력과 수단을 포함하는 가치에 의해 지지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²⁸⁾ 자유의 가치에 대한 이 주장은 롤즈의 정의론이 형식적 기회균등이 아니라 실질적인 평등을 주장하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최소수혜자의 기대치를 최대한으로 증진하라는 차등의 원칙을 통해 공사 양 영역에서 최소수혜자의 입장에 속하는

25) JGF, 92쪽

26) JGF, 174쪽

27) JGF, 109쪽

28) TJ, 204쪽

많은 여성들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다음으로 오킨은 롤즈의 정의론에서 자존감(self-respect)이 가장 중요한 사회적 덕목으로 간주되는 것에 주목하고²⁹⁾ 여성들이 하나의 독립적 인격으로서 자유와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 남성들의 욕구 실현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오킨은 여성의 자존감을 손상시키는 음란물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³⁰⁾

사실 이러한 교정을 통한 재평가는, 현재 그 자체로는 너무 지엽적이고 내부적인 모순이 있지만 어느 정도 롤즈 정의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³¹⁾ 오킨의 논의에 따르면, 우선 분배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기본 가치의 목록에 우호적인 양육 조건과 평등한 가족 관계가 포함되고, 또 개인의 합리적 인생계획도 관계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바뀌게 된다. 이 결론에 따르면 앞으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중시하게 될 관계성과 공감적 배려는 일면 차등의 원칙의 공사 영역에서 실현 가능하게 될 것도 같다.

4. 맺는 말

이제 남은 문제는 앞서 논의된 오킨의 자의적인 해석이 자유주의에 대한 아니면, 적어도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에 대한 기존의 비판을 초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³²⁾ 우선 공동체주의 중에서도 신보수주의자로 알려진 엘쉬타인(Elhstein)은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이 지역 사회보다 개인의 우위를 강조함으로써 공동체를 약화한다고 비판한다. 또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어머니이자 아내이기를 원하는 여성들을 '남성과 같아지기를 원하는 여자'로 과소평가 했다고 주장한다.³³⁾ 그러나

29) TJ, 440쪽

30) JGF, 104쪽

31) JGF, 107-108쪽

32) 부족한 자료와 연구 때문에 오킨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는 피했다.

33) R. 통, "자유주의 페미니즘" 『페미니즘 사상』한신문화사, 1989, 49-53쪽 참조. 엘쉬타인의 자유주의 페미니즘 비판은 통의 이 책에서 재인용함

오킨의 전제 자체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논쟁 속에서 정의론의 합당한 위치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은 적용되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오킨은 신보수주의자들이 가족의 안정성 확보와 자녀 보호라는 명목과 미명 아래 여성의 성별적 분업구조를 지속시키려 하고 있으며, 여성이 쉽게 이혼할 수 없도록 하고, 미혼모를 비난하는 시대착오적인 보수반동자들이라고 비판한다.

또한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앨리스 재거(A. Jaggar)³⁴⁾는 자유주의적 페미니스트들은 정신과 육체, 이성과 감정을 구분하는 이원론자이기 때문에, 육체적 활동과 기능을 평가 절하시킬 뿐만 아니라, 대부분 정치적 유아론과 회의주의로 유도한다고 비판한다. 또 자아를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행위자로 인식하는 등 정신과 이성이라는 남성적 가치를 지나치게 중시한다고 비난한다. 그런데 재거의 이러한 비난도 오킨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 오킨이 정의의 윤리학과 보살핌의 윤리학을 통합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오킨은 자신이 결코 그러한 규범론적 이원론자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로즈마리 통이 주장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20세기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복지 혹은 평등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오킨도 예외는 아니다. 오킨은 분배적 정의를 토대로 하는 롤즈의 사회계약론적 정의론을 원용해서 성차별 없는 자유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철학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 토대는 한편으로는 미혼모 자녀의 강제적 부계 인지와 가계수입의 전면적 균등분배와 같은 급진적인 정책적 대안을 통해서 자유주의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 같아 보인다. 또 서구, 중산층, 백인, 이성애적 핵가족의 모형을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의 전통적 가족 개념과 자본주의적 가부장제의 요소를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오킨은 전통적인 공사 이분법에 따라 가족관계는 사회 윤리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인 정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못한다는 끈질긴 편견, 즉 가족은 감정적 유대로 연결된 하나의 통합된 단위로서 정의의 여건을 벗어난다는 편견과, 가족은 자연적으로 가부장적 위계질서로 조직되는 어쩔 수 없는 부정의한 체제라는 편견을 극복하고 가족에 정의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정의의 위기를 제시했다. 가족에서의 정의의 위기를 맞게되는 원인은 사적 영역에서의 전통적 성별관계가 공적 영역에

34) R. 통, op.cit., 53-60쪽 참조

서 여성의 위치를 불평등하게 만들고, 이러한 공적 영역에서의 불평등은 다시 사적 영역에서의 전통적인 성별관계를 재 강화하는 악순환의 고리이다. 오킨의 자유주의적 페미니즘 정의론은 그러한 공사이분법의 부정의한 측면을 폭로함으로써 전통적인 성별 분업구조에 도전하고, 여성의 가사 노동을 진정한 노동으로 간주하고, 남성을 사적으로 불러 들여 가사와 양육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악순환을 멈추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사실 오킨이 추구하는 성차별 없는 정의롭고 따뜻한 가족과 사회로 나아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 길에는 동일성과 차이성, 포함과 배제, 평등과 특혜적 보호, 정의와 보살핌, 이성과 감정,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다양한 딜레마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킨의 작업이 보이지 않는 여성의 가사 노동과 취업여성의 성 역할 갈등에서 오는 이름 없는 문제를 드러내서 정의의 문제로 상징했다는 점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J. Rawls,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 _____, 『사회정의론』황경식 옮김, 서광사, 1987
- S. M. Okin, Justice, Gender and the Family New York: Basic Books, 1991
- _____, Women in Western Political Thought,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9,
- _____, "Reason and feeling in Thinking about Justice" Ethics, vol. 99, pp.229-249, 1986
- _____, "Justice as Fairness : For Whom?" Justice key concepts in critical theory, Milton Fisk(ed), 1997
- Carole Pateman "The Disorder of Woman: Woman, Love, and the sense of justice" Ethics, vol.91, 1987
- 로즈마리 통, 『페미니즘 사상 : 종합적 접근』김소영 옮김, 한신문화사, 1995
- 바렛, 미셸 매리 매킨토시, 『가족은 반사회적인가』김혜경 옮김, 여성사, 1994
- 쏘온, 배리, 매릴린 알롬(ed), 『페미니즘 시각에서 본 가족』권오주 外 옮김, 한울, 1991
- 권명아, 『가족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책세상, 2000
- 박정순, "자유주의 대 공동체주의 논쟁의 방법론적 쟁점" 『철학연구』철학연구회, 1999
- 박완서,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박완서 문학전집』세계사, 1994
- 허라금, "서구정치사상에서의 공사개념과 가부장적 성차별성" 『여성학논집』이대한 국여성연구원, 1996
- 허란주, "자유주의에 대한 현대 윤리학의 재도전" 『철학연구』철학연구회, 1998

Abstract

The Family, Beyond Justice?

Lee, Jie-sung

John Rawls' s a theory of Justice has had the most powerful influence of any work of contemporary moral and political theory. The scope of Rawls' s influence is indicated by the fact that all the theorist make an issue of their respective disagreements with his method and with his conclusions.

This study refers to Rawls' s theory of justice as fairness, to examine not only what it explicitly says and does not say, but also what it implies, on the subjects of gender, women, and the family.

There is strikingly little indication, throughout most of a Theory of Justice, that the modern liberal society to which the principles of justice are to be applied is deeply and pervasively gender-structured. Thus and ambiguity runs throughout the work, which is continually noticeable to anyone reading it from a feminist perspective. Especially, as Susan Moller Okin shall argue, a consistent and wholehearted application of Rawls' s liberal principle of justice can lead us to challenge fundamentally the gender system of our society.

This study, according to S. M. Okin' s Rawls Reading, shall ask two related question: what effects does a feminist reading of Rawls have on some of his fundamental ideas; and what undeveloped potential does the theory have for feminist critique, and in particularly for our attempts to answer the question "Can justice coexist with Gender and Family"

In conclusion, Rawls' s the original position, with the veil of ignorance

hiding from its participants their sex as well as their other particular characteristics, talents, circumstances, and aims, is a powerful concept for challenging the gender structure. Once we dispense with the traditional liberal assumption about public versus domestic, political versus nonpolitical spheres of life, we can use Rawls's theory as a tool with which to think about how to achieve justice between the sexes both within the family and in society at large.